

#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 '복지남원' 구현 앞장

남원시가 지역 내 산재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역복지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남원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 지향상 살피고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과 인적연결망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발굴·추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의 커뮤니티-케어(Community-care) 기능강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역할을 집약,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2021년의 남원시 복지행정을 살펴본다.



희망키움기게 3호점 개점

### ▲신규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남원시는 생계급여의 부양무제도 폐지와 점진적인 기준 완화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심도 있는 상담과 맞춤형 연계를 통해 2,727가구가 맞춤형 기초급여를 신청한 결과 1,201가구를 책정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4,423건, 수시변동자료 2만5,472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에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명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했으며, 취약계층 우선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해 총 10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69가구 102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결정해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에 관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남원시는 2020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최고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2021년도에도 제도 전파했다는 각오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오고 있다.

###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건강키프인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억8,3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했으며, 당뇨 소모성재료 구입비 122건/1,400만원, 인공호흡기 19건/1,100만원, 자동박파부식 4건/1,100만원, 산소치료 98건/1,500만원, 기침유발기 16건/200만원, 장애인보조기기 77건/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로 1,898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1인 가구 수급자가 급성기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14일 이내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종일 간병서비스'를 추진해 총 10명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발굴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추진

남원시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탈수급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에 총 34억원을 지원해 자활사업 참여자 123명 중 15명이 생계급여 탈수급에 성공했으며, 통장사업 가입자 중 70명이 자립양육교육을 이수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32명, 희망키움통장(Ⅱ) 66명, 내일키움통장 32명, 청년희망키움통장 30명, 청년저축계좌 21명에게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 남원시건강강화·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8개 자활사업단에 91명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남원시지역자활센터는 2020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청년 채용 위주의 자활사업단 개발을 목표로 지난해 베트남골목시장 개점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미터리, 매머드와 같은 청년자활근로사업단을 신설하여 청년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함과



온종일 간병서비스



찾아가는 동네한바퀴

동시에 참여자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또한, '자활 동기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시행으로 참여자의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고 '탈수급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탈수급자의 소득 보전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촉촉한 복지안전망 구축

갑작스런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1,314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총 8억1,500만원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168회의 사례회의를 거쳐 168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2,726가구에 서비스를 연계하고 민간지원 3억3,000만원, 행정지원 8억1,500만원 등 총 11억4,500만원을 지원해 복지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구호물품을 1,874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한시생계지원)으로 3,591명에게 12억7,000만원을 지원,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7만 4,870명에게 187억1,7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비대상자 4,382명에게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원시 2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각 읍면동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특화사업을 시행,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관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지원 연계 등으로 인적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의식 함양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8만원씩 1,430여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당사자에게는 생일축하금과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지원해 그분들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명패 사업으로 213명의 국가유공자(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 희생자)집에 국가유공자명패를 부착해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도 힘썼다.

특히 덕과면 3.1만세운동 발상지 기념탑 주변의 배수로 공사에 250만원을 투입해 정비함으로써 보훈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호국정신을 기약하고 계승하는데 노력했다.

조환익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시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지역의 복지역량을 강화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모두가 누리는 희망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맞춤형 기초급여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

1인 가구 수급자 입원시 14일 이내 무료간병 지원 '온종일 간병서비스' 추진

저소득 가정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등 지원 참여자 123명 중 15명이 생계급여 탈수급 이뤄

안전관리 취약가구 조사 돌봄 필요 782가구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이직률 낮추기 위한 '든든수당' 신설

국가유공자 예우 분위기 확산에도 힘써와



복지관련 간담회



희망2022 나눔캠페인